

네코노아나 ~배빵지옥 4화 -한국어

피어어어억!



“에부우우우웃!!”

치에코의 흑에 클린히트 당한 오리에가 타액을 흘뿌리며 로프로 날려진다.

에.. 어째서..? 무슨 일이 일어난거지? 치에코의 흑에 맞춰 내지른 회심의 스트레이트. 계획은 완벽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

육싢!

녕마짜이 되도록 얻어맞은 복부에 격한 통증이 달리며 한순간 오리에의 몸을 정지시켰고 무방비가 된 사이 치에코의 흑에 그대로 직격. 그런게 아니면 저런 뻘히 보이는 펀치에 내가 당할리 없잖아?

정말 그런걸까?

오랫동안 방치해 녹슬대로 녹슨 몸은 처음부터 오리에가 그린 이미지만큼 빠르지 못했다. 어쩌면 카운터를 노린 그 순간부터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었을지도 몰라. 하지만 더 이상 그건 중요치 않았다. 방어를 버리고 공격에 전념한 회심의 일격. 그 실패에 따른 리스크는 상당했다.

“치에코 선수의 라이트 흑이 안면에 작렬! 오리에 선수 로프로 날려진다!”



한순간 의식을 잃을 정도의 커다란 데미지를 받고 로프로 날려진 오리에가 쓰러질 수 없다는 일념으로 로프에 팔을 걸쳐 버티고 서지만 이미 눈이 풀려 도저히 시합을 속행할 상태가 아니었다.

'...아, 아직... 내가 이런 피라미 따위한테 질리가...!'



'퍼어어억!!'

뇌진탕에 정신을 못 차리는 사이 추격해온 치에코가 오리에의 복부에 보디 스트레이트를 꽂아넣는다. 데미지를 막아줄 근육이 전부 망가져 무방비로 노출된 복부에 풀파워의 바디 스트레이트가 꽂히자 결국 참지 못하고 대량의 위액을 토해낸다.



“오웨에에에엑!!”

처벅..!처벅..!

“쿠후후, 어때? 이 몸의 보디스트레이트는. 진짜 배빵이란건 이런걸 말하는거야!”

위액을 토해내는 오리에를 기다리지 않고 안면에 치에코가 주먹을 꽂아넣는다.

퍽! 빠악! 퍼억!

“누음!! 부흡!! 우브으음!!”

“치에코 선수! 오리에 선수의 안면에 펀치 연발! 마치 치에코선수 전용 샌드백이다!”

‘내, 내가 샌드백...부흡! 우, 웃기지 마. 이딴..부헝! 돼지 따위에게...누흐음! 크, 크헝..!’

쿠웅-!

“여기서 다운!”

로프에 걸쳐진채 전신을 수차례 가격당해 힘없이 자신의 토사물 위로 쓰러져 다운된다. 머리카락까지 전부 헝클어져 통통 부은 얼굴은 이전 같은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그건 이미 틀림없는 패배자의 얼굴이었다.

“누으...으...”

치에코가 오리에의 눈 앞에 떨어진 마우스피스를 보란듯이 짓밟는다.

“쿠흐흐.. 허접 주제에 선배라고 나대더니, 훈계하기 전에 멧집부터 키우고 오시죠? 선배님. 카하핫!”

‘이, 이 년..!’

오리에의 다운을 확인한 레프리가 치에코를 제지하며 끼어들어온다. 부어터진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미약한 신음소리. 아직 의식이 있음을 확인한 레프리가 텐 카운트를 세기 시작한다.

“7,8,9...”

“어이쿠! 오리에 선수. 10 카운트 KO 직전 링에 섰다!”

“허억, 허억, 크으웃...!”

레프리가 오리에의 가슴팍에 묻은 토사물을 대충 닦아내고 파이팅포즈를 취하지만 다리가 풀려 제대로 서지도 못하는 오리에의 모습은 치에코를 실소하게한다.

“흐흐흐, 계속 바닥이나 깔고 있을것이지 또 아픈꼴 보고 싶은가보지? 자, 여기 열려있다고? 호레호레~.”

양팔을 허공으로 올리고 배를 앞으로 내밀며 도발해온다. 그 도발에 응해 오리에가 마지막 힘을 짜내 치에코를 향해 스트레이트를 날린다.

“이제와서 이런 펀치...누그흐읍!!”

퍼어억!

“그후으읍! 우으으에억!!”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던 치에코가 예상 못한 위력에 배를 붙잡고 나뒹굴러지더니 매트에 진득하게 타액을 쏟아낸다.

“오..! 오억! 게에엿..!”

오리에의 마지막 혼신에 일격. 하지만 거기엔 이미 치에코를 쓰러트릴 수 있는 힘은 없었다. 꼴사납게 보디한방에 다운되어 잔뜩 화가 치민 치에코가 카운트를 세려는 레프리를 밀치고 일어나 오리에에게 돌진한다.

“이, 이 개년아...!!”

빠억!

“부게억!!”

치에코가 흑에 얻어맞고 다운되려는 오리에의 머리채를 붙잡고 연거푸 보디블로를 날린다.



“이게...! 이게...!”

퍼억! 펍! 퍼억!

“읍! 누흡! 우게엿!”

“뒤편버렸-!!”

퍼어어억-!!

“구웬에에엑!!”

피니쉬블로의 보디어퍼. 남은 위액을 전부 토해낸 오리에의 사타구니 사이에서 금색 액체가 흘러넘친다.



“읍..우욱...오에에...”

배에 주먹이 꽂인채 ‘ㄱ’자로 꺾여 신음소리를 흘리면서 몸을 경련하는 오리에에게 레프리가 다가와 상태를 점검하더니 이내 녹아웃 사인을 보낸다.

깡-! 깡-! 깡-!

치에코가 남은 손을 공중으로 치켜들어 승리를 선언하자 링 바깥에서 무수한 플래시가 터졌고 그렇게 오리에의 복귀전은 배에 글러브가 꽂힌채 실신KO라는 풀사나운 결말을 맞이하고 만다. 치에코가 실신한 오리에를 매트에 던져 만신창이인 배를 짓밟고 그 면상에 침을 뱉는다.

“흥, 좃밥 주제에... 넌 이제부터 내 전용샌드백이다, 알았냐?”

....

...

..

관계자실 오리에의 시합을 지켜보고 있던 이세시마에게 금발롱트윈의 여자가 다가온다.

“어때? 네 선배의 시합의 감상은. 저래보도 전 슈퍼루키라고?”

“선배라니 설마 저 한심한 샌드백을 말하는건가요? 저딴게 슈퍼루키라니 지하 링의 수준도 떨어질대로 떨어졌네요. 게다가 그 타이틀은 이미 버렸으니 이젠 선배도 뭣도 아니라고요?”

“지금은 링의 아이돌복서였던가? 그래서 내겐 무슨 불일이지?”

“후후, 아시잖아요? 그 건에 대해 확답을 받으러 왔어요.”

“어지간히 링에서 졸업하고 싶은 모양이군. 널 잃는건 아깝지만 채무에 대해선 그 도련님으로부터 전부 변제 받았고, 계약상 남은 시합에서만 전부 이기면 수속을 밟아주지. ‘전부’ 이겼을 때의 이야기지만.”



“후후, 설마 이 제가 질거라고? 기대하셔도 좋다구요? 지하아이돌다운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후후후.”